

광주시, 수영대회 국비 169억 추가 지원 요청

북한문화 광주특별전 열려 北 선수단 참가 추진 5개 자치구 참여 홍보·안전·관광 등 중점 점검

광주시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비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북한문화전시회 광주특별전'을 열고 북한선수단 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가운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계획 보고회'를 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날 보고회는 주요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과제의 개선·보완사항을 살펴 보고 현장 중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북한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오는 9월~10월), 2018 광주

비엔날레 '북한미술전시회' (9월 7일~ 11월 11일), '북한문화전시회 광주특별전' (2019년 7월~8월)을 열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특히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참여해 홍보, 안전, 문화·관광, 시민참여, 환경, 교통 등 8개 분야 93개 과제를 중점 점검했다.

또 광주시와 유관기관, 5개 자치구는 ▲공용차량 대량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환자 의료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글로벌 식품접객환경 조성 및 식품 안전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수영

대회선수촌 및 경기장 주변도로 간판 개선 ▲대중교통 수영대회 홍보물 부착 등을 함께 추진한다.

5개 자치구는 교통질서 지키기, 클린 광주 운동 '내 집 앞 내가 쓸기', 안전하고 친절한 시민운동, 식음료 종사자 친절교육 등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광주가 안전하고 친절하고 국제도시로 도약하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에는 4차 지원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보완사항 등을 점검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종합지원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속도 내나

경유 10개 지자체 현안 논의 오늘 광주서 실무자협의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추진을 위해 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들이 힘을 모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토의 동서축 연결을 통한 영호남의 동반 성장, 수도권과의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21일 광주시청에서 '제3차 달빛내륙철도 경유지 지자체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해 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등 경유지 10개 지자체가 달빛내륙철도 건설 해법을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달빛내륙철도의 기재부 예타조사에 대비한 경제성 분석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지난 7월 2일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하고 이어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9월 3일 이용섭 시장, 권영진 시장 등 경유지 지자체장 10여 명과 국회 의장, 각 정당 대표, 경유지역 국회의원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앞두고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지자체별 역할과 2019년 국비 10억원(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 등도 논의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 간 191.6km를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6조308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영호남 내륙도

사가 연결돼 산업구조 연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분위기에 맞춰 남북철도와 달빛내륙철도를 연계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전체효과를 제고해 영·호남까지 수혜지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속 200~250km로 주행하는 고속화철도가 놓일 경우 광주~대구 간 1시간 이내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기존 부산~동해선과의 연결을 통한 남북철도의 확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1300만명 규모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광역경제권을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영호남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광주시, 28일까지 특별점검

광주시는 가을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약청, 교육청,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6개 반 36명)을 편성해 실시된다. 대상은 집단급식소(학교) 124곳, 학교매점 7곳, 학교납품 식품판매업소 118곳 등 총 249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 관리 ▲식품유수 관리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또 학교급식소 조리음식, 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0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수목비엔날레 사무국 제공>

전남수목비엔날레 손님맞이 준비 분주

31일 개막 작품 설치 한창

국내 최초 전통회화 비엔날레인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가 개막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품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20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에 따르면 수목비엔날레는 '오늘의 수목,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오는 31일 개막한다.

수목비엔날레는 목포와 진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목포에서는 '현대수목의 재창조'를, 진도에서는 '전통수목의 재발견'을 선보인다. 목포와 진도에 각각 3곳씩 총 6개의 전시장에서 국내외 작가 266명의 작품 310점이 전시된다.

사무국은 지난 14일 전시장별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설치 미술, 미디어아트 작품 설치를 시작했다. 전시장별로 오는 25일까지 작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전 홍보행사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목포 자유시장에서 열린 '수

목 앞치마 예술제', 10일부터 한 달간 펼쳐지는 '국제적 수목수다방' (國際的水墨數多芳)이 비엔날레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수목수다방은 국내외 작가가 주민과 함께 도심 유휴 공간에 문화예술을 입히는 창작 활동이다.

목포 평화광장에서는 붓춤과 진도 북춤 등 퍼포먼스가 공식 행사 기간 내내 선보이며,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는 수목 홍보관이 운영된다.

오는 27~28일에는 수목비엔날레 온라인 홍보기자단 10명이 목포·진도를 방문, 개막을 앞둔 전시장 실황을 전한다. 30일에는 진도 운림산방에서 국내외 참여작가 150여 명이 참여하는 전야제가 열린다.

개막일인 31일에는 '수목과 현대미술, 간극과 접점'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포럼이 열리고, 이어 오후 5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실내공연장에서 대장정을 알리는 개막식이 시작된다.

본 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열린다.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은 21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관별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가 공동주최한다. 또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동신대,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전 공공기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한국전력 등이 각각 '혁신도시 시선2'와 국가균형발전 대응과제,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지역발전계획 및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빛가람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방안과 이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빛가람혁신도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 사업 구체화 등을 위한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oe.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턴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